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장서 및 보존 현황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Book Saturation and Preservation Status in School Libraries in Chungcheongbuk-do

노 영 희 (Younghee Noh)** , 강 봉 속 (Bong-Suk Kang)***
곽 승 진 (Seung-Jin Kwak)**** , 장 인 호 (Inho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현황 |
| 2. 선행 연구 | |
| 3. 연구의 방법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공동보존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 학교도서관들은 이미 포화도가 극에 달해 개별 도서관은 장서 포화도의 관리와 적정 장서 수의 관리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둘째, 장서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었다. 셋째, 78%의 학교도서관에서 장서포화도가 이미 75% 이상을 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폐기 장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속한 공동보존 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위 도서관에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며, 자료보존 관련 정책 및 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with a focus on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We conducted surveys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gather perceptions.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ly, the surveyed school libraries we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 levels of book saturation, necessitating the management of book saturation and proper book quantity. Secondly, very few libraries had the facilities required for book preservation. Thirdly, the research showed that in 78% of school libraries, book saturation already exceeded 75%, leading to a rapid increase in discarded books each year.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systematic expansion of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Moreover, given the difficulty of individual libraries in establishing facilities for preservation, valuable materials such as rare books and specialized resources should be transferred to a shared preservation center. Additionally,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aterial preservation are deemed necessary.

키워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장서포화정도, 보존현황, 현황조사

Chungcheongbuk-do, School Libraries, Book Saturation Level, Preservation Status, Status Survey

* 본 연구는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교신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공동저자)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gmail.com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1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2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1): 83-97,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1.083>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의 장서관리는 관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보존보다는 이용 쪽에 무게중심을 가장 많이 두는 관종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은 자료 제공 서비스는 물론 교수 학습의 증축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2019년에 이루어진 장병진의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강원도교육청 소속 22개 공공도서관과 623개 학교도서관에서는 늘어나는 장서를 더 이상 자관에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와 별개로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광역대표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있거나 건립되어 있어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보존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대표도서관도 건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보존관에 대한 논의를 쉽사리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학교도서관의 수많은 애로사항을 물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육청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행정 문서

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물론 이러한 교육 관련 행정 장서를 동시에 보존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공동보존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는 학교도서관의 장서 포화 상태를 포함해서 매년 이관이 필요한 장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현황을 기초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여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지역 교육청에서 공동보존관을 언급할 때 보통 특정 관종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장서의 공동보존을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학교도서관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워낙 작으며, 신간 수집량이 많고 학생들의 수요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와 보존관 설립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끊이지 않고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강봉숙(2022)은 학교도서관 단행본 장서 배가를 위한 소요 서가 산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도서관 11곳을 방문하여 배가 현황을 학교급별, 한국십진분류법의 주류 주제별로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0cm 단위 서가 단의 67%를 배열하는 이상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46.9권, 32.3권, 28.4권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90cm 단위 서가 단의 75%를 배열하는 현실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52.8권, 36.4권, 32.0권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단행본 장서 배가를 위한 소요 서가 산출에 대한 도구를 제시하였다.

장덕현과 강은영(2016)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서의 중요성과 주로 소규모장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 사서교사의 부재 또는 과도한 업무, 관리자의 무관심과, 잦은 전출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장서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관리되는지 그 현상적 과정을 파악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분석하여 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승길과 송기호(2017)는 단위 학교도서관에서 장서관리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및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지침서에 포함할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관련 문서를 국제 수준 및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장서관리지침서에서는 장서의 양적 기준 이외에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 공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자료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지침서가 포함해야 할 항목을 크게 장서관리의 일반 원칙과 장서관리지침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장서관리지침서가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성준과 이병기(2017)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5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현황에서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 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등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장서관리 체제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장서관리정책, 장서 배가를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한국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를 위한 배가 상태를 지역 단위 수준에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과 포화도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공

동보존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학교도서관의 장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3.1 조사 방법 및 대상

조사 대상은 충청북도 도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 478개관이다. 특수학교 10개관은 학교도서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웹설문으로 작성하고 공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에 배포하였다. 2023년 6월 29일(목)에서 2023년 7월 5일(수)까지 1주일 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478개 학교도서관 중 회신을 준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55명으로, 55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의 12%에 해당하는 곳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교도서관 수

소속	학교도서관 수
충청북도교육청	86
청주교육지원청	150
충주교육지원청	56
제천교육지원청	36
보은교육지원청	20
옥천교육지원청	19
영동교육지원청	21
진천교육지원청	2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9
음성교육지원청	32
단양교육지원청	18

〈표 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수

학교급/유형		학교 수	
초등학교		268	
중학교		128	
고등학교	일반고	47	82
	자율고	4	
	특목고	7	
	특성화고(대안)	1	
	특성화고(직업)	23	
특수학교		10	

〈표 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장서 및 보존 현황 조사 방법론

구분	설문방법
설문대상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 478개관
설문기간	2023. 06. 29. - 2023. 07. 05.
설문방법	공문을 통해 일괄 배포
설문 회수율	학교도서관 담당자 478명 중 55명(12%)

3.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1) 장서 현황, 2) 소장 공간 현황, 3) 장서 포화도 현황, 4) 장서 폐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표 4〉 참조).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4.1 장서 현황

4.1.1 소장 장서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소장 장서 중 전체 도서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소 6,424권에서 최대 29,678권까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1개관은 평균 17,057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4.1.2 연간 장서 증감 추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의 4년간의 장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모두 증가 후 코로나 시기와 학교도서관 공간 재개편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19년 6,479,079권에서 2020년 6,680,925권(▲2019년 대비 201,846권 증가)으로, 2021년 6,787,461권(▲2020년 대비 106,536권 증가), 2022년 6,712,799권(▼2021년 대비 74,662권 감소)으로 지속적인 증가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서의 경우 2019년 93,925점에서 2020년 96,208점(▲2019년 대비 2,283점 증가)으로, 2021년 93,226점(▼2020년 대비 2,982점 감소), 2022년 76,410점(▼2021년 대비 16,816점 감소)으로 증가 후

〈표 4〉 장서 및 보존 현황 조사 설문지 주요 문항

항목	내용	문항 수
		학교
장서	현재 장서 소장 현황	1
소장 공간	연면적, 연면적 대비 자료 소장 공간 비율, 보존 시설 현황	4
장서 포화도	장서 포화도 현황, 예상되는 장서 포화 연수	3
장서 폐기	장서 폐기 현황, 장서 폐기 주요 이유 등	4
계		12

〈표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 전체 도서자료

구분	전체 도서자료	구분	전체 도서자료	구분	전체 도서자료
1	18,561	21	19,640	41	15,137
2	16,760	22	14,688	42	19,204
3	11,321	23	11,897	43	10,040
4	17,086	24	23,737	44	22,307
5	13,822	25	18,912	45	25,968
6	18,980	26	21,212	46	16,215
7	18,751	27	14,695	47	18,905
8	18,000	28	12,185	48	14,365
9	9,037	29	15,982	49	15,225
10	13,116	30	24,174	50	29,203
11	23,145	31	26,695	51	13,181
12	20,519	32	11,076	52	8,870
13	16,577	33	29,678	53	6,424
14	11,918	34	21,880	54	6,860
15	16,596	35	9,857	55	29,458
16	16,855	36	19,565	총계	938,161
17	11,897	37	17,000	평균	17,057
18	15,446	38	12,772	최솟값	6,424
19	19,171	39	16,872	최댓값	29,678
20	18,191	40	18,533	중앙값	16,855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도서자료는 2019년에서 2020년에 급증 후 2021년에서 2022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상황과 학교도서관 공간 재개편 사업 추진에 따라 장서 폐기 업무의 활발한 수행 등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가 증가 추세에 놓임에 따라 개별 도서관의 포화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미 포화도가 극에 달한 개별 도서관은 장서 포화도의 관리와 적정 장서 수의 관리를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보존 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6〉 〈표 7〉 참조).

4.2 소장 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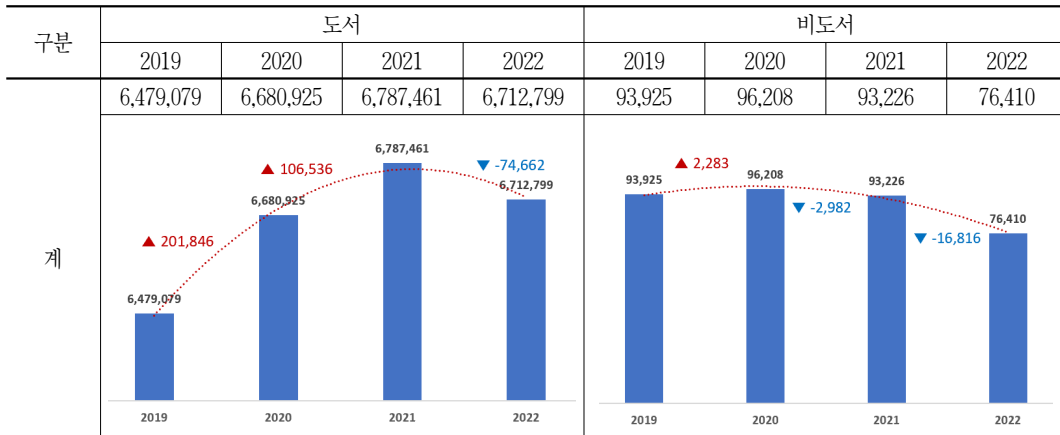
4.2.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전체 공간과 자료 소장 공간 추산 규모

학교도서관 전체 공간은 1개관 당 평균 177.58㎡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간 중 평균 49.76%를 자료 소장 공간으로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86.16㎡로, 1개관 당 평균 86.16㎡를 자료 소장 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자료 보존 시설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 보존을 위해 갖춘 시설 현황을 크게 1) 환경 조절, 2) 서

〈표 6〉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2019-2022년)



〈표 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별 장서현황(2019-2022년)

구분	도서				비도서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괴산·증평	324,672	332,676	339,329	335,224	3,781	3,799	3,672	3,387
단양	195,052	198,309	199,740	187,517	2,099	2,112	1,425	1,303
보은	219,414	221,084	226,214	228,066	1,663	1,680	1,731	1,668
영동	209,662	218,508	218,525	228,814	1,837	1,412	1,459	1,485
옥천	235,257	242,732	235,425	239,217	2,449	2,837	10,741	1,932
음성	370,688	379,505	371,837	368,018	2,816	3,116	3,168	2,819
제천	506,816	541,328	539,278	540,626	15,372	12,928	11,880	11,471
진천	291,595	305,951	312,615	297,671	5,011	4,348	3,922	3,023
청주	232,952	2,283,966	2,344,382	2,321,067	33,736	33,855	32,250	27,183
충북	1,191,476	1,236,819	1,251,241	1,231,328	13,250	19,666	12,497	12,354
충주	701,495	720,047	748,875	735,251	11,911	10,455	10,481	9,785
계	6,479,079	6,680,925	6,787,461	6,712,799	93,925	96,208	93,226	76,410

가, 3) 재난대비로 나누어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협소한 학교도서관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료 보존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먼저, 환경 조절을 위해서는 소독처리장비(87.27%)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으며, 그 외 자외선 차단 시설(43.64%), 제습기(16.36%), 온습도계(14.55%), 향온향습시설(3.64%) 등의 순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서기는 일반서기(90.91%)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 관리를 위해 갖추고 있는 재난대비 시설은 휴대용 소화기(81.82%) 화재경보장치(65.45%), 자동소화시설(16.36%), CCTV(1.82%), 기타(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소장 공간 현황: 전체 공간 및 자료 소장 공간 추산 규모

구분	전체 공간(㎡)	자료 소장 공간		구분	전체 공간(㎡)	자료 소장 공간	
		%	㎡			%	㎡
1	202	70	141.4	31	134	70	93.8
2	165	35	57.75	32	165	50	82.5
3	131	40	52.4	33	201	50	100.5
4	171	50	85.5	34	125	40	50
5	174.96	50	87.48	35	135	50	67.5
6	150	80	120	36	393	40	157.2
7	180	50	90	37	310	30	93
8	136	50	68	38	135	67	90.45
9	200	40	80	39	195	70	136.5
10	126	40	50.4	40	201	35	70.35
11	151	50	75.5	41	180	90	162
12	404	30	121.2	42	164.09	30	49.227
13	201	35	70.35	43	120	50	60
14	192	70	134.4	44	222	80	177.6
15	135	40	54	45	302	10	30.2
16	162	60	97.2	46	202	50	101
17	128	40	51.2	47	162	50	81
18	101	25	25.25	48	67	80	53.6
19	198.25	50	99.125	49	209	40	83.6
20	168.75	30	50.625	50	268	75	201
21	180.34	50	90.17	51	247.86	60	148.716
22	202	40	80.8	52	67	60	40.2
23	128	40	51.2	53	67	50	33.5
24	134	50	67	54	123.4	50	61.7
25	134	50	67	55	198	40	79.2
26	264	45	118.8	평균	177.58	49.76	86.16
27	70	50	35	최솟값	67	10	25.25
28	139	50	69.5	최댓값	404	90	201
29	243	50	121.5	중앙값	168.75	50	80.8
30	202.5	60	121.5				

자료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야 마땅하지만, 현재 소독처리 장비나 자외선 차단 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도서관에서 갖추고 있고 항온항습시설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별 도서관마다 자료수장량과 유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

인 차원에서 자료 보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4.2.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자료 보존 현황에 대한 의견

학교도서관의 자료 보존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별도의 보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매년 학

〈표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소장 공간 현황: 시설현황(복수응답)

구분	항목	N	%	
자료보존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없음		11	20.00	
환경조절	소독처리장비	48	87.27	
	자외선차단 시설(암막 커튼 등)	24	43.64	
	탈산처리장비	0	0.00	
	공기조화설비	제습기	9	16.36
		향온향습시설	2	3.64
온습도계		8	14.55	
서가	일반서가	50	90.91	
	밀집서가(모빌랙)	전동식서가	0	0.00
		수동식서가	0	0.00
		핸들전동겸용(수동형+전동식)	0	0.00
재난대비	보안장비	CCTV	1	1.82
		이중 잠금장치	0	0.00
	화재감시체계	화재경보장치	36	65.45
	화재진압체계	자동소화시설	9	16.36
		휴대용소화기	45	81.82
기타		1	1.82	

〈표 10〉 보존 현황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자료 보존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자료 확보와 서비스가 주류를 이룸	21
별도의 보존 공간 확보가 어려움	5
서가 공간의 확보가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자료 보존은 힘든 상황임	4
공간 재구조화, 서가 교체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 중임	3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이관이 필요함	3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는 등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음	2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폐기하고 있음	2
자료보존공간의 한계수장량으로 인해 장서 폐기를 해야 함	2
장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본은 구비하지 않음	2
특정 주제 장서가 포화상태임	1
보존서고가 있어 서가 공간은 여유가 있음	1
도서관 면적은 넓으나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서가 공간은 많지 않음	1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은 협소하여 신간도서 입수에 어려움이 있음	1
향후 장서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임	1
이관 주기 단위가 길 경우 개별 도서관에서의 이관 자료의 축적 및 보존이 어려울 것임	1
학교도서관 공간을 교실 세 칸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학교도서관은 서가 공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료 보존보다 이용자를 위한 자료 확보와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장서 포화도 현황

4.3.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전체 도서 자료의 서가 공간 대비 장서 포화도

장서 포화도가 85%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전체의 34.55%로 나타났고, 75% 이상 85%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3.64%로 나타났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의 절반 이상(78.18%)이 장서 포화도 75% 이상으로 서가 공간의 극심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4.3.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장서 포화상태 예상 구간

학교도서관 중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도서관이 25.45%, 장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향후 2~3년일 것이라 응답한 도서관은 32.73%, 4~5년은 25.45%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83.64%가 4~5년 이내로 장서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3.3 장서 포화도에 대한 의견 조사

자유 응답 분석을 통해 장서 포화도에 대한 추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간도서 입수 시마다 서가를 재배치해야 하고, 서가 공간의 확보를 위해 장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치 있는 자료라도 발행연도가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표 1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포화도 현황: 전체 도서자료

구분	N	%
50% 미만	2	3.64
50% 이상 67% 미만	7	12.73
67% 이상 75% 미만	3	5.45
75% 이상 85% 미만	24	43.64
85% 이상	19	34.55
계	55	100.00

〈표 1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포화도 현황: 장서 포화상태 예상 구간

구분	N	%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14	25.45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32.73
향후 4~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25.45
향후 6~7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5.45
향후 8~1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0	0.00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10.91
계	55	100.00

〈표 13〉 장서 포화도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장서 포화도가 높아 신간도서 입수 시 서가 재배치가 필요함	20
서가 공간 확보를 위해 장서를 폐기하고 있음	15
아직 장서가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음	5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복본, 다권본	3
향후 장서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자료 이관이 필요함	3
가치 있는 자료라도 발행연도가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자료는 폐기할 수밖에 없음	2
서가 이동이 어려운 구조 등으로 인해 서가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움	2
학급문고나 책 나눔 행사, 재활용업체 등 도서 기증을 통해 장서 포화도를 관리하고 있음	2
포화상태에 이른 장서 주제: 문학	2
서가 배치를 위한 공간이 넉넉함	2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료구입비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함	2
장서가 포화상태에 이름	2
장서 폐기만을 통한 서가 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2
학교도서관 공간을 교실 1칸 정도의 규모가 아닌 교실 3~4칸 이상의 규모로 설계하여 서가 공간과 열람(학습) 공간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함	1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그림동화	1
장서를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료 유형: 교수학습자료	1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자료 이관 및 모든 학교도서관이 공동보존자료관의 자료를 공동이용(책배달 및 책수거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
장서 포화도는 높지만 가치상실 자료 및 폐기 대상 자료를 고려하면 적정 장서 수를 유지할 수 있음	1

자료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장서 폐기를 통한 서가 공간 확보도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해야 하는 데 비해 서가 공간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서는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4.4 장서 폐기

4.4.1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장서 폐기 권수

연간 폐기 장서 권수 총계는 2020년 기준

44,842권, 2021년 기준 55,188권(▲2020년 대비 10,346권 증가), 2022년 기준 70,312권(▲2021년 대비 15,124권 증가)으로 폐기 장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장서 포화도 현황을 고려할 때, 서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 장서 권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4.4.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의 장서

폐기 주요 사유

파손, 오손, 훼손 자료(65.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장 공간 부족(45.45%),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30.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폐기: 연간 폐기 장서 증감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구분	2020	2021	2022
1	0	450(▲450)	11,000(▲10,550)	30	1,671	1,758(▲87)	1,776(▲18)
2	0	0	613(▲613)	31	0	1,038(▲1,038)	0(▼1,038)
3	500	1,573(▲1,073)	469(▼1,104)	32	1,056	3,985(▲2,929)	1,962(▼2,023)
4	461	1,061(▲600)	1,434(▲373)	33	1,000	1,000	1,000
5	0	0	67(▲67)	34	0	0	0
6	0	965(▲965)	498(▼467)	35	0	4,726(▲4,726)	0(▼4,726)
7	1,171	592(▼579)	0(▼592)	36	1,916	1,059(▼857)	0(▼1,059)
8	0	0	182(▲182)	37	0	0	0
9	1,730	1,982(▲252)	1,061(▼921)	38	0	2,135(▲2,135)	4,464(▲2,329)
10	1,005	3,104(▲2,099)	950(▼2,154)	39	1,146	0(▼1,146)	1,886(▲1,886)
11	1,830	4,229(▲2,399)	959(▼3,270)	40	1,023	0(▼1,023)	881(▲881)
12	0	700(▲700)	600(▼100)	41	0	610(▲610)	5,309(▲5,309)
13	1,257	1,273(▲16)	1,239(▼34)	42	1,398	0(▼1,398)	1,045(▲1,045)
14	0	0	0	43	905	2,819(▲1,914)	767(▼2,052)
15	980	921(▼59)	1,149(▲228)	44	1,846	260(▼1,586)	5,445(▲5,185)
16	0	0	1,350(▲1,350)	45	0	0	0
17	673	1,038(▲365)	1,011(▼27)	46	2,907	2,699(▼208)	323(▼2,376)
18	0	1,470(▲1,470)	5,857(▲4,387)	47	0	691(▲691)	1,338(▲647)
19	1,573	4,113(▲2,540)	558(▼3,555)	48	0	0	0
20	603	830(▲227)	1,451(▲621)	49	1,024	997(▼27)	1,168(▲171)
21	2,525	1,008(▼1,517)	1,089(▲81)	50	582	1,159(▲577)	776(▼383)
22	929	0(▼929)	5,585(▲5,585)	51	0	0	0
23	673	1,038(▲365)	1,011(▼27)	52	653	675(▲22)	669(▼6)
24	1,148	1,007(▼141)	356(▼651)	53	0	0	0
25	1,040	0(▼1,040)	0	54	0	0	0
26	1,005	799(▼206)	0(▼799)	55	524	380(▼144)	1,700(▲1,320)
27	0	0	0	계	44,842	55,188(▲10,346)	70,312(▲15,124)
28	7,311	765(▼6,546)	834(▼69)	평균	815	1,003(▲188)	1,278(▲275)
29	777	279(▼498)	480(▲201)				

〈표 1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장서 폐기: 주요 사유(복수응답)

구분	N	%
소장 공간 부족	25	45.45
과다한 복본	14	25.45
이용율이 낮은 자료	12	21.82
파손, 오손, 훼손 자료	36	65.45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17	30.91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	2	3.64
기타	1	1.82

4.5 종합 시사점

학교도서관은 자료 제공 서비스는 물론 교수 학습의 증축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역시 극심한 장서 포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위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도 교육청 단위 공동보존 자료관을 통한 체계적인 장서 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동보존 자료관이 설립되면 학교도서관으로부터 자료 이관 시 도서 위주 자료 이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위 학교도서관은 공간 특성 상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자료 이관 시 단순한 이용률 저하 자료 등에 대해 자료 이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존 자료관 정책 및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한학기 한책 등 교육과정 상 필요성으로 갖추어둔 복본 자료가 일정 시점 이후 활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단위 학교도서관에서는 해당 복본이 불필요하게 다수 소장되어 향후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장서 구독을 통해서 일시에 폭발적 열람 수요를 보이는 장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수의 복본을 학교도서관에서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이관을 통해 도서관 간 무료 택배 꾸러미 대출을 통한 상호대차방안 마련 등 효율

적 서비스 사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공동보존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장서의 공동보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이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공동보존관의 설립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고,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현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최근의 장서량의 증가로 인한 포화 상태,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요구에 따른 문화 및 프로그램 향유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빈도가 낮은 장서를 공동보존서고로 이동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기고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도서관의 포화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미 포화도가 극에 달한 개별 도서관은 장서 포화도의 관리와 적정 장서 수의 관리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둘째, 자료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야 마땅하지만, 향온향습 시설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료 보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교도서관 절반 이상(78.18%)이 장서 포화도 75% 이상으로 서가 공간의 극심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폐기 장서 권수 총계는 2020년 기준 44,842권, 2021년 기준 55,188권(▲2020년 대비 10,346권 증가), 2022년 기준 70,312권(▲2021년 대비 15,124권 증가)으로 폐기 장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극심한 장서 포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공동보존 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 증대가 긴급한 것으로 보인다. 협소하고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공간 특성에 따라 단위 도서관에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

로 회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며, 자료 보존 관련 정책 및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동보존자료관 자료 이관 시 단순한 이용률 저하 자료 등에 대해 자료 이관 기준 마련이나 다양한 복본 자료의 상호대차 활용 방안 마련 등 교육청 단위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에 필요한 교육청 단위 장서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을 제안한 데 의의가 있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중 12%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장서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22). 학교도서관 장서 배가를 위한 소요 서가 산출에 대한 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347-364. <http://doi.org/10.4275/KSLIS.2022.56.1.347>
- 곽승진, 이정미 (2018).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39-359.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김성준, 이병기 (2017).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1-4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3.21>
- 노영희, 강봉숙, 곽승진, 장인호 (2023).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에 대한 현장 인력의 인식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139-159. <http://doi.org/10.4275/KSLIS.2023.57.4.139>
- 도서관디자인연구소. 출처: <https://library.re.kr>
- 이승길, 송기호 (2017).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3-4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023>
- 장덕현, 강은영 (2016). 학교도서관 장서개발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41-259. <https://doi.org/10.16981/kliss.47.3.201609.241>
- 장병진 (2019).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료 공동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

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충청북도교육청통합도서관. 출처: <https://lib.cbe.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출처: <https://kess.kedi.re.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 Hyun & Kang, Eun Young (2016).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241-259. <https://doi.org/10.16981/kliss.47.3.201609.241>
- Chungcheongbuk-do Public Library. Available: <https://lib.cbe.go.kr>
- Jang, Byong-Jin (2019). Research on the Co-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terials of Public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 Kang, Bong-Suk (2022). Discussion on calculating the required shelves for arranging the school library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347-364. <http://doi.org/10.4275/KSLIS.2022.56.1.347>
- Kim, Sung-Jun & Lee, ByeongKi (2017). A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collection management state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21-4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3.21>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al Statistics. Available: <https://kess.kedi.re.kr>
- Kwak, Seung-Jin & Lee, Jeong-Mi (2018). Study on larchiveum introduction strategy of library as a multi cultur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39-359.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Lee, Seung-Gil & Song, Gi-ho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a national collection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schoo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51(3), 23-44.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023>
- Library Design Lab. Available: <https://library.re.kr>
- Noh, Younghee, Kang, Bong-suk, Kwak, Seung-Jin, & Chang, Inho (2023).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level of book saturation in Chungcheongbuk-do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4), 139-159. <http://doi.org/10.4275/KSLIS.2023.57.4.139>